

지역 소식통

관내 경로당 46개소
부안군, 태양광 보급 완료

부안군은 올해 관내 경로당 46개소에 3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태양광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다. 부안군 등록 경로당 472개소 중 올해 46개소를 포함한 절반이 넘는 247개소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완료하였다. 그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도 월 4~5만 원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어 어르신들의 편의 증대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부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장애인 일자리사업
부안군, 참여자 모집

부안군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2021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규모는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취업을 위해 필요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반형일자리 21명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참여형) 23명 등 총 44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행정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이며 우선선발기준(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 점수와 사업참여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면접(기본직무 및 사회활동능력 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을 빛낸 기업인 격려

유진섭 시장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12곳 대표 축하 간담회 열고 향후 전망·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모색

정읍시는 지난 4일 정읍시를 빛낸 자랑스러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생생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지역 내 12개 업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유진섭 시장은 "2020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인들을 축하하고, 산업 현장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동향과 대응 상황 등에 대해 소통하고, 향후 전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안타깝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 기업 대표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또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민의 성원과 기업의 의지로 서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 악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물류비용 상승과 우수인력 구인난, 경영자금 지원 필요성 등을 호소했다.

유 시장은 행정과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해 지역 기업들이 국내외 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시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소독제 배부, 융자금 이자 0.5% 추가 지원 등 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1기업 1담당제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및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지난 4일 정읍시를 빛낸 자랑스러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생생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정읍시, '국가 기후변화대응' 우수기관 '영예'

정읍시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020년 국가 기후변화대응 건강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한파로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적

극적인 대응으로 주민 건강 관리와 피해 예방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폭염과 한파 기간 중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후변화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관련 질환에 대한 일일 보고와 사제관리에 적극 참여했다. 또, 캠페인과 보도자료, SNS 등을 통

한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유도했다.

허성욱 보건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보건 행정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 활동과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폭염과 한파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드려요"

고창군,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창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고창군의 11월말 기준 환급금은 916건, 2978만6000원이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감액 ▲국세 경정(更正,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지방세

특세 감액 ▲지방세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사유 발생 즉시 환급 신청 안내를 하고 있지만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주소불명이나 사망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군은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대상자에게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환급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

지 않고도 전화나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향후 발생된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환급이 가능하다.

고창군청 조정호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고 공감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급상담은 고창군 재무과(560-2488)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심원면 도천리 '담바우공방'을 이달부터 새로운 수탁자와 함께 새단장한다.

고창 심원 '담바우공방' 단장한다

마주봄, 이달부터 3년간 수탁

고창군이 심원면 도천리 '담바우공방'을 이달부터 새로운 수탁자와 함께 새단장한다.

심원 담바우 마을공방은 2016년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만들어졌다.

이달부터 3년동안 주식회사 마주봄(대표 이동원)이 고창군과 민간위탁을 체결했다.

담바우 목공방은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귀촌인 유입을 통한 마을 활성화를 물론 점점 잃어가는 공동체성을 두루 회복하는 작은 씨앗이 되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목공방 우드 카누 제작, 지역특산물 제작, 목공 체

합,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공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험과 제품판매 수익금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면서 농촌마을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취약계층과 귀촌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마을 주민들과도 지속적인 교육과 교류를 통한 주민들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창군청 이영운 농어촌식품과장은 "주민들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유대감을 강화해 잃어가는 공동체성을 두루 회복하고, 작은 씨앗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일·가정 양립지원 모범 운영

고창군이 지난 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도 가족친화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선정한다.

여기서 가족친화제도란 자녀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고창군은 지난 2017년 12월 신규 인증 이후 이번 재인증 기관에 선정, 오는 2023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며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서의 명

예를 드높이게 됐다.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차 이름을 올린 고창군은 그간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남녀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임신부와 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직원 분인과 가족 건강관리 지원, 실리검사프로그램 운영 등 열심히 일하는 가족친화조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재인증은 군민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